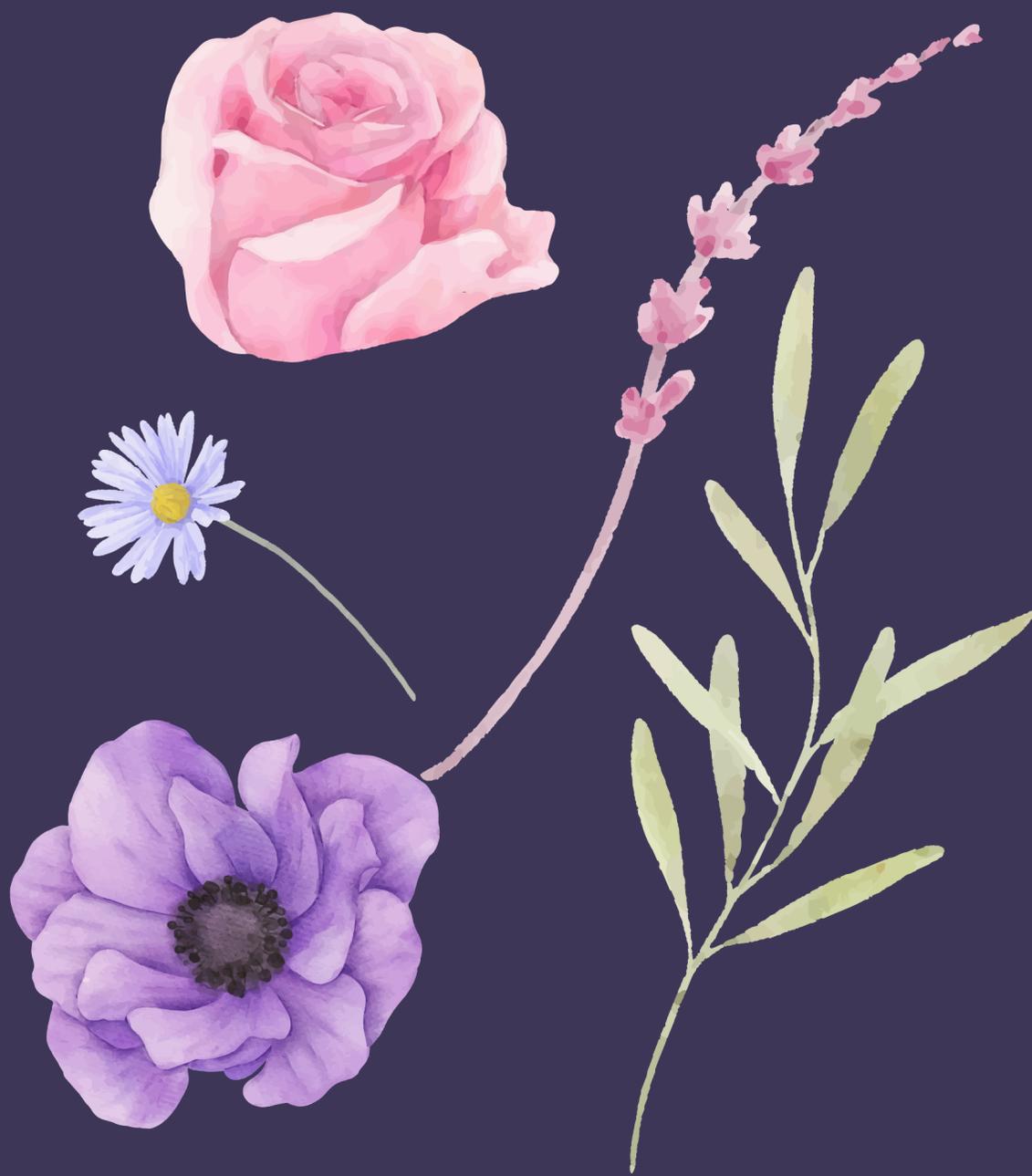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배지

2024. 8. 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후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브릿지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7장 17~24절

다 같이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 나눔

하나님의 두 모습

인도자

오늘 본문은 엄청난 대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로 홍수 속에 잠겨버렸고 온갖 숨 쉬는 것들은 헐떡이며 죽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핑음 속에서 대자연이 하나님의 분노를 반영하여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엄청납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는 이런 참혹한 모습만이 전부 아닙니다.

온천지를 뒤덮은 망망한 대해 위에 한 점 모래알 같은 방주가 떠 있었습니다. 온 땅의 모습이 뒤바뀌는 거대한 지진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20세기의 첨단 과학으로 지은 가장 완전한 배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노아의 방주는 전문가도 아닌 아마추어가 만든 나무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자체가 튼튼해서 이런 엄청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라한 방주를 품어 지켜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아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공정하게 가리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죄와 의를 분명하게 가려내고 죄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간과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고 심판하십니다.

본문 21~22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혹 사람들은 재판할 때 죄에 대해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강하게 혹은 약하게 징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생물들을 멸하실지언정 죄를 간과하시거나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에 철저하시며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가는 각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여 변함이 없으신 인자한 사랑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온 지면이 물에 덮여 모든 생물이 다 멸절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홍수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 대지가 다 심판으로 멸절되었지만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연 만물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절을 주심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표현이 가정과 개인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공의와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실 때는 사랑이 전혀 없으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 때는 공의도 없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혹독한 공의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있고, 가장 풍성한 사랑 속에 더 엄격한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지만 결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옛날 죄인은 꼭 죽어야 된다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끔 만들어서 당신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있고, 공의가 시행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중심과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1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개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 2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지 나누어주세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 1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 2 정치와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등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 3 각 나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롭게 되도록
- 4 질병과 경기 침체, 전쟁과 자연 재해 등 고통받는 성도와 나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 5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